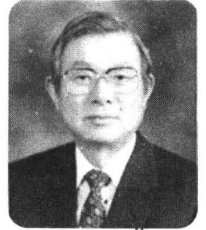


ILO/WHO의 “산업보건”의 새로운 정의



조 규 상

1996년 4월 24일 Madrid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관련있는 국제 조직과 국제회의의 비공식회담에서 배부된 자료인 Background Information(VI)는 1995년 4월 ILO/WHO 합동위원회가 산업보건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산업보건은 다음의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모든 직업에 있어 근로자의 최고도의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의 증진과 유지 ;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그들의 작업 조건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의 이탈방지 ; 건강에 불리한 요인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의 취업중의 근로자 보호 ; 근로자의 생리적·심리적 능력에 적당한 직업적환경에 배치와 유지, 정리하면 ; 사람에게 대한 작업의 적응과 그 작업에 대한 각자의 적응이다.]

[산업보건에 있어 주요한 초점은 세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i)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능력의 유지와 증진 ; (ii)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작업환경과 작업의 개선 ; (iii) 작업에 있어서의 건강과 안전을 뒷받침하고 또 그리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기풍과 위만한 운영을 촉진하며 또 사업의 생산성을 올리게 하는 방향으로의 작업조직과 작업문화의 발전 ; 작업문화의 개념은 여기서는 해당기업에서 채용되는 불가결한 가치 시스템의 기업의 경영시스템, 직원대책, 참가원칙, 훈련방침과 품질관리에 반영된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Vi)the Joint ILO/WHO Committee on Occupational Health(April1995)adopted a new definition of occupational health:

“Occupational health should aim at :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highest degree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of workers in all occupations: the prevention amongst workers of departues from health caused by their working conditions: the protection of workers in their employment from risks resulting from factors adverse to health: the placing and maintenance of the worker in an occupational environment adapted to hi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apabilities and, to semmarize: the adaptation of work to man and of each man to his job”

“The main focus in occupational health is on three different objectives: (i)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workers’ health and working capacity; (ii) th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work to become conducive to safety and health; and (iii) devlopment of work organizations and working cultures in a direction which supports health and safety at work and in doing so also prmotes positive social climate and smooth operation and may enhance productibility of the undertakings. The concept of working culture is intended in this context to mean a reflection of the essential value systems adopted by the undertaing concerned. Such a culture is reflected in practice in the managerial systems, personnel policy, principles for participation, training policies and quality management of the undertaking.”